

2012 엑스포 여수로



복치는 실뱅단장 11일 밤 여수시 중화동 해상공원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 환영행사에서 가래맹 실뱅(가운데) 실사단장이 북을 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나명주기자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의 여수 현지 실사가 지난 11, 12일 이틀동안 이뤄졌다. 11일 오후 여수에 도착한 까르맹 실뱅 단장 등 7명의 실사단은 여수 시내에 쏟아져 나온 5만여 명의 환영 인파와 뜨거운 유치 열기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라며 감격했다. 또 실사 기간 동안 거북선축제와 불꽃축제가 함께 열려 여수는 그야말로 잠 못드는 이틀을 보냈다.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했던 이틀동안의 여수 실사 과정을 화보로 엮는다.

'감동 실사' 유치 희망 보인다



거북선 타고 BIE 실사단 대표들이 11일 밤 열린 시민 환영행사서 조선시대 주력한 판옥선 모형 차량을 타고 중화동 해상공원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여수 넘버 원 BIE 실사단이 11일 여수 거리를 돌고 돌아 버스로 이동하려하자 여수시민과 학생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실사단의 모습을 찍으며 환호하고 있다.



육교 메운 환영 인파 BIE 실사단이 11일 오후 여수공원에 도착하자 시내를 향하는 길에는 수많은 여수시민들이 나와 만국기를 흔들며 뜨겁게 환영했다.



요트에 새긴 '여수 엑스포' BIE 실사단이 여수를 찾은 12일 오희도 앞 바다에서는 요트가 해상퍼레이드를 펼치며 여수 유치를 기원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commercial spaces, and land. Includes sections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알파공인중개사', '새하늘과세평공인중개사', and '금보부동산컨설팅'. Each listing provides details on price, location, and features.